

근대계몽기 제도번역을 통한 서양의학 지식 생산과 확산: 제중원의 의학교재 번역을 중심으로

강 지 혜
(아주대)

1. 서론

본 연구는 근대계몽기 서양의학 지식의 번역 문제를 제도번역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서양의학은 조선 중 후기에 실학자들이 중국에서 번역된 서양의학 서적을 읽고 조선에 소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서양의학 지식이 도입된 것은 1876년 문호개방 이후이다.²⁾ 특히 1885년

1) 본고에서는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를 ‘근대계몽기’로 일컫는다. 개항 이후부터 한일합병까지의 시기는 서양 신문물 도입을 통해 계몽을 이루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되고 번역이 새로운 위상을 차지하기 시작한 때이다. 신문화운동이 일어나고 번역을 통해 새로운 서양 지식이 확산되면서 신조어와 새로운 문체 및 언어 구조가 우리말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기도 했다(한영균 2014). ‘근대계몽기’는 국어사, 국문학사 연구자들이 이 기간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며(예, 홍윤표 1995; 허재영 2002), 본고에서도 이 용어를 그대로 쓴다.

에 설립된 제중원은 의료 활동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과 교재 편찬을 통해 조선 사회가 서양의학 지식을 수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899년부터 10여 년 동안 제중원에서는 총 32권의 의학교재 번역이 진행됐고, 번역작업은 올리버 에비슨(Oliver R. Avison), 김필순, 홍석후, 홍중은 등 제중원 소속 인사들이 수행했다.

본고에서는 ‘제도번역(institutional translation)’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 문제를 살펴본다. 제도번역은 “기관의 이름으로, 기관을 대표하여, 또는 기관을 위해”(Gouadec 2007: 38) 이루어지는 번역을 의미하며, 제도번역 연구에서는 번역을 수행하는 주체(기관)에 초점을 두고 번역 과정과 결과, 행위와 맥락을 분석한다. 제중원은 체계적인 의학 교육을 위해 교수, 재학생/졸업생이 텍스트를 번역한 후 제중원 출판사(대한황성제중원 출판사)를 통해 의학교재로 번역서를 출간했다는 점에서 제도번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이에 관해서는 본고 2장 참조). 특히 제중원의 번역활동이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의 확산과 서양지식에 대한 복합적 태도, 조선 내 개신교 선교사들의 포교활동, 현대 한국어 문체의 성립 과정의 혼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 증가 등의 맥락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번역 관점은 번역이 당시 복잡한 역사적 상황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의학번역이 근대계몽기 번역지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그동안 제중원에 관한 연구는 의학, 신학, 역사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번역학계에서는 제중원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강지혜 권미연(2017)을 제외하고는 없었다.³⁾ 번역학에서는 주로 한 문화권에서 탄생한 용어와 개념, 텍스

- 2) 여인석(2008)은 서양의학 지식의 도입을 ‘수동적 수용 단계’와 ‘능동적 수용 단계’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호기심 차원에서 서양의학을 알아가고 소개하던 조선 중 후기를 ‘수동적 수용 단계’, 수용의 주체가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조선 말기를 ‘능동적 수용 단계’라고 설명한다. 이익, 정약용, 최한기 등이 ‘수동적 수용 단계’에, 제중원의 번역자들이 ‘능동적 수용 단계’에 속한 인사들이다.
- 3) 제중원을 탐구한 의학 연구자들은 서양의학 도입 시기의 의료 행위와 제도, 의학 교육 문제를 주로 다뤘고(김두중 196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1986; 박형우 1998; 여인석 2009), 역사학 분야에서는 근대 의학을 비롯한 서구 기술 문명 도입의 역사적 문제들을 많이 연구했다(신동원 1995; 이광린 1990; 주진오 1997). 신학적 관점에서는 주로 제중원 활동의 선교사적 의의, 한국 교회 성장사 등

트와 지식이 번역 주체에 의해 어떻게 중개되는지, 의미와 가치들이 어떤 비교적인 관점에서 다뤄지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따라서 의학지식 번역 문제를 번역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번역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가 중개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지식이 각종 문화적, 사회적, 인식론적 경계를 넘어 이동할 때 지식의 “여행”(Said 1983: 226)은 객관적, 가치중립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규명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근대 서양의학 지식의 번역 문제를 학술지식의 초국가적 이동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본다. 주디 와카바야시(Judy Wakabayashi)는 번역을 통한 지식의 확산 문제를 ‘견인형(pull-driven) 확산’, ‘투입형(push-driven) 확산’, ‘혼합형(combination) 확산’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Wakabayashi 2017). ‘견인형 확산’은 도착어 문화권에서 주도하는 지식 번역으로 주로 공리주의적 입장이나 경제적 정치적 고려에 따라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번역과 지식 확산이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문화 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이 따른다. 이와 달리, ‘투입형 확산’은 주로 출발어 문화권이 주도하며 시장 확장을 위해 지식이 번역 및 전파되는 것을 지칭한다. 국가의 문화정치적 전략 또는 제도적 장치(예, 재정 지원)를 통해 지식이 확산되는 경우에 학문의 식민화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마지막 유형인 ‘혼합형 확산’은 앞에서 언급한 두 유형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지닌 것이다. 본고에서는 와카바야시가 제시한 분류법이 제중원을 통한 의학 지식 생산 및 확산에도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2. 제도번역과 제중원의 교재 편찬

2.1 제도번역 분석방법과 데이터

본 장에서는 연구방법과 데이터에 대해 살펴본 뒤 분석틀에 따라 제중원의 제도번역을 검토한다. 번역학 연구방법을 크게 개념적 연구방법과 경험적 연구

을 연구했다(백낙준 1973; 이만열 2003; 서영석 2009).

방법으로 구분한다면(cf. Chesterman and Williams 2002), 제도번역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경험적 연구방법,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기관(concrete institution)”(Koskinen 2011: 57)에 대한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제증원을 분석하며, 특히 제증원과 번역자들에 대한 각종 기록과 문헌(선교사들의 일기 및 서신, 신문 및 잡지 기사), 제증원 출간 번역서(히부학 권一, 二, 三, 약물학 상권, 무괴질)에 대한 텍스트분석을 통해 제증원의 제도번역 양상과 의의를 고찰한다.

제도번역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국제기구, 정부기관, 언론기관, 종교기관, 교육기관, NGO 등 각종 제도적 맥락에서 행해지는 번역에 대한 탐구가 이어졌다. 이들 연구를 통해 규명된 것은, 제도번역이 시대별, 문화권별로 그 중요성과 하위유형들이 상이하며,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적으로 제도번역의 중요성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Koskinen 2008; Mossop 2014; Kang 2014; Wakabayashi 2014; Schäffner, Tcaciuc, and Tesseur 2014; Hung and Wakabayashi 2014). 일례로 중국의 경우 ‘관(官) 번역(government translation)’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번역 유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관 번역’의 중요성은 한국과 일본 번역 역사에서도 나타난다(Hung and Wakabayashi 2014). 그러나 ‘관 번역(또는 정부기관 번역)’이 번역학에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번역을 주로 번역자 개인의 행위로 간주해온 유럽의 번역관을 토대로 번역학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Kang 2009). 따라서 번역기관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문화권별로 어떤 번역기관이 있는지/있었는지, 기관별로 어떤 텍스트가 번역되고 있고 기관의 번역자는 누구인지, 제도번역이 어떤 역사적 사회문화적 의의를 지니는지에 대한 정교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번역을 ‘기관 층위’, ‘번역정책 층위’, ‘번역실천 층위’, ‘번역텍스트 층위’로 구분하여 고찰한다(그림 1 참조).⁴⁾ ‘기관 층위’에서는 기관

4) 제도번역을 ‘기관 층위’, ‘번역정책 층위’, ‘번역실천 층위’, ‘번역텍스트 층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은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하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제도번역을 고찰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4개 층위 중 한 두 가지 층위를 집중적

의 설립 이념과 목적, 기관 운영의 역사적 사회정치적 맥락, 기관에서의 번역 역할 등을 살펴본다. ‘번역정책 층위’에서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언어 및 번역 정책, 기관의 언어/번역 관련 규칙/지침을 고찰한다. ‘번역실천 층위’에서는 기관 내 번역행위자의 실제 역할과 위상, 번역 대상으로 선정되는 텍스트, 번역텍스트 제작 과정, 번역 수행의 절차 등을 분석한다. 끝으로 ‘번역텍스트 층위’에서는 번역텍스트를 통해 드러난 번역방법 및 전략, 번역텍스트의 담화적 의미적 구조적 문체적 특징 등을 검토한다. 이들 층위를 중심으로 번역을 분석할 때 기관의 번역활동이 제도적 구조와 관계망 속에서 다른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유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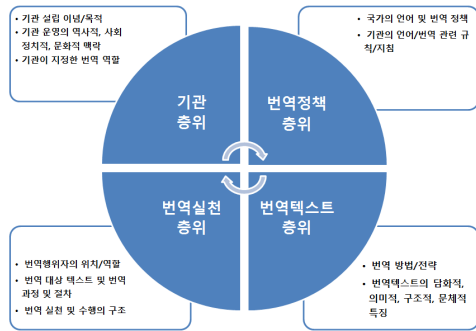


그림 1. 제도번역 분석 층위

번역 역할에 대한 분석은 ‘기관 층위’와 ‘번역실천 층위’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번역의 역할과 실제 번역이 수행하는 역할이 다를 경우 분석과정에서 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각 층위 간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층위별 그리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번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으로 탐구하지만, 번역의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관계 중심적인 관점에서 체계적, 유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4개 층위를 모두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방법을 사용한다.

2.2 제중원의 제도번역

2.2.1 시대적 배경

제중원에서 번역을 통해 서양의학 지식을 확산하기 시작한 근대계몽기는 서양의 문물에 대한 선망과 위기의식이 동시에 나타나던 시기였다. 당시의 집권관료세력들은 서양의 기술문명이 조선에 비해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조선의 유교적 윤리도덕과 정치제도가 서양보다 우월하다는 ‘동도서기론’과 봉건체제를 해체하고 근대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종교와 정체 체제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 ‘문명개화론’을 두고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주진오 1997). 그런 가운데 조선에 진출하거나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확대하고자 하던 선교사들은 기독교 교리와 서양문물을 번역하여 적극적으로 전파하고자 했다. 1882년 존 로스(John Ross)가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서상륜, 이성하, 이익세, 최성균 등과 함께 공동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한글로 처음 번역하였고, 선교사 제임즈 게일(James S. Gale)은 황해도 출신의 이창직과 함께 *Pilgrim's Progress*를 한글로 번역하여 최초의 영문 소설 한국어 완역본인 『턴로력당』을 1895년 출간했다.⁵⁾ 당시 선교사들은 조선 사회에서 직접적인 복음전도와 교회설립 등의 활동은 전개할 수 없었고(민경배 2007), 병원과 학교 사업만 조선 정부로부터 허락받은 상황이었기에 선교사들은 의료 및 교육활동을 통해 선교를 했다.

1900년대부터는 근대 지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번역의 중요성을 다룬 논설이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계속 발표되었다(허재영 2015). 1905년을 기점으로 민간 출판사들이 급증하였고, 조선 지식인들이 여러 텍스트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신문관을 중심으로 번역출판활동을 수행한 최남선은 『소년』을 비롯한 각종 잡지에 번역물을 게재함으로써 번역을 통한 신문화운동을 펼쳤다(권두연 2008, 2010). 당시 번역의 저본은 주로 일본어 번역본이었는데, 번역물은 연재 또는 단행본 형식으로 출

5) 근대 교육 보급에 있어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끼친 영향은 매우 컸는데, 성경을 알레고리로 쉽게 풀이한 『턴로력당』은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에서 필독서로 사용되었다(이지훈 2016: 214).

강되었다. 1910년대 초반에는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일본 가정류 번안소설이 활발하게 출판되는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이한 방법으로 번역한 텍스트가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다. 번역텍스트의 문체도 순한문, 국한문, 순국문으로 이루어지면서 근대 어문의 복잡한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서양의학의 본격적인 조선 사회 도입은, 문호개방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근대의료 도입”과 “의료선교사들에 의한 서양의학 도입”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박종연 1990: 282). 일본은 병자수호조약 체결 후 일본인의 왕래가 많았던 부산에 1877년 제생의원(濟生醫院)을 설립했다(김두중 1966).⁶⁾ 조선 최초의 서양식 근대 병원인 제생의원이 부산에 설립된 후 서울, 원산, 인천 등에도 일본 병원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이들 병원 설립은 식민주의적 팽창 정책과 조선 침략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고, 서양의학 서적의 번역이나 의학 교육을 수반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의학 수용은 아니었다(박종연 1990).⁷⁾ 이와 달리, 근대계몽기 개신교 의료선교사들은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한국어 교재 편찬을 통한 한국어 의학지식 전파에 힘썼다. 선교의료는 초기에는 조선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후에는 일제의 견제와 회유,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전우용 2007; 조형근 2009). 선교의료는 민족주의운동 및 항일운동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선총독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일제의료와는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였다.

6) 제생의원의 원장은 일본의 해군군의(海軍軍醫)가 맡았고, 진료는 주로 일본인 거류민과 일부 조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김두중 1966). 당시 한성순보 33호는 제생의원에서 일본인 2998명과 조선인 729명이, 36호에는 일본인 2838명, 조선인 75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7) 박종연(1990)에 의하면 일제의료는 조선인 대상의 민심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민간 의료단체 중심의 의료시혜를 조선에서 집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활동은 일본의 필요에 따른 것이고, 다만 콜레라 방역이나 천연두 예방 등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근대 의료의 요소들이 정착되었다(박종연 1990).

2.2.2 제중원의 제도번역 분석

(1) 기관 층위

제중원은 1885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소속의 의료선교사 호러스 알렌(Horace Allen)이 조선 왕실에 서양식 근대 병원 건립을 제안하여 설립된 병원이다.⁸⁾ 선교사들은 제중원을 “정부병원(government hospital)” 혹은 “왕립병원(royal hospital 또는 His Majesty’s hospital)”이라 불렀는데, 제중원의 재정 행정 운영권은 조선 정부에 있었고 의료권은 미 북장로교 선교부에 있었다(주진오 1997: 297). 알렌이 조선 정부에 제출한 ‘병원 설립제안(朝鮮政府京中設建病院節論)’에 의하면 병원 설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귀 정부에서 다행히 저로 하여금 백성을 두루 보호할 방도를 베풀게 하신다면, 저도 서양학문으로 조선의 병든 군사들과 병든 선비들을 지극히 필요한 방도로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선의 생도들이 서양의 의법을 배워 약을 쓰는 방법을 알 수 있고 또 조리하는 절차를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llen 1884, 북장로교 선교부 엘린우드 총무에게 보낸 10월 8일자 서신; 필자 번역)

위 내용은 알렌이 북장로교 선교부에 보낸 서신에 기록된 것으로, 환자 진료와 서양의학 교육을 명분으로 제중원 설립을 제안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알렌과 북장로교 소속의 의료선교사들은 제중원을 무엇보다도 기독교 선교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알렌에 이어 제2대 제중원장이 된 헤론이 북장로교 선교본부 엘린우드 총무에게 보낸 서신에도 이런 인식이 드러난다.

8) 알렌은 갑신정변 당시 심한 자상(刺傷)을 입은 민영익을 응급 처치하였고, 후속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시킴으로써 조선 정부의 신임을 얻었다. 당시 미국공사관 소속의 사였던 알렌의 명성은 이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고, 결국 제중원 설립에 알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켜 서양의 새로운 풍조를 한국에 도입하고자 하였던 개화당의 기도는 좌절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이 정변은 서양 의술을 전파시키는데 커다란 공헌”(박종연 1990: 285)을 했다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다. 설립 당시에는 ‘광혜원’라는 명칭이 사용됐지만, 개원 직후 ‘제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저는 의술을 배풀고 있지만 위대한 의사[예수]를 전해야 하는 저의 사명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전파하기를 갈망합니다. (Heron 1885, 북장로교 선교본부 엘린우드 총무에게 보낸 6월 26일자 서신; 황상익 2010: 9에서 재인용)

그러나 조선 왕실과 집권관료세력들의 관점은 달랐다. 제중원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간략하게 ‘외아문’, 오늘날의 외교부에 해당)의 산하기관으로 운영되었고, 선교활동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당시 외교와 통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근대 문물 도입과 시행은 외아문이 관장했는데(황상익 2010), 제중원도 서양 문물, 특히 기술 문명 도입의 시각에서 설립되었던 것이다. 제중원에서의 선교 불허 방침은 제중원 내 교회 설립을 시도한 제3대 제중원장인 빈튼과 조선 정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조선에서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 진료와 교육을 간접적인 선교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 선교사들의 입장이라면, 조선 정부는 제중원 설립을 통해 기술문명, 물질문명을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다(김윤성 2004; 주진오 1997). 따라서 제중원 설립은 서양의학을 통해 조선 의학을 보강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조선 정부의 의지, 그리고 조선 진출과 선교활동이 목적인 미 북장로교 선교부의 계획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이는 결국 제중원을 통한 서양의학 수용이 조선의 주체적인 근대화 구상, 그리고 알렌 및 미 북장로교의 선교에 대한 열망이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제중원은 설립 후 일 년이 지난 1886년에 16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서양의학 교육을 최초로 실시했다.⁹⁾ 1886년부터 1890년대 말까지 학생들의 영어실력 증진을 위해 우선 영어 교육을 실시한 뒤 영어로 쓰인 의학교재를 이용하여 의학 교육을 실시했다(서흥관 1994).¹⁰⁾ 그러나 영어 교육과 영어 교재 사용에 따

9) 제중원의 의학 교육은 제중원 ‘병원 규칙’의 제3조 “학생 4명을 선발, 병원에 배치한다”와 제4조 “이들 학생들은 병원 의사를 도와주고, 의사의 감독 지시 하에 의약품을 조제 투약한다. 그리고 외국인 의사가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학생들은 환자들을 간호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업무를 담당한다”에 따라 실시되었다(서흥관 1994). ‘병원 규칙’은 원본이 전해지지 않고 『알렌 일기』에 영문 번역본만 남아 있다(김원모 1991).

10) 제중원 신입생 16명에게 언더우드와 알렌 부인, 헤론 부인 등이 영어를 가장 먼저

른 부작용(예, 의학 교육의 질 저하, 학생 전원 졸업 전 영어 업무 관련 직종에 취직 등)으로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1893년 올리버 에비슨이 제중원에 부임하면서 제중원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의학 교육은 1986년부터 실시하고 있었으나 1899년에 이르러 제중원 의학교가 정규 의학교로 공식 등록된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1986). 에비슨이 초대 교장이 된 제중원 의학교에서는 1908년 1회 졸업생을 7명 배출했다(여인석 2009; 박준형 박형우 2011). 1894년에는 제중원 운영권이 전적으로 미 북장로교 선교부로 이관되면서 제중원은 조선 정부의 개입 없이 선교사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에비슨은 미국 클리블랜드의 개신교 사업가인 세브란스(Louis H. Severance)의 도움으로 1904년 남대문 밖 북송아골에 최초의 서양식 현대 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을 건립했다.

에비슨은 토론토 의과대학(Toronto Medical School) 교수로 재임 중 미 북장로교 선교부 본부에 의해 파송되어 제중원에 부임하게 되었다. 특히 의학 교육을 체계화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던 그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의학 교육을 실시하고 조선인 의사를 양성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의사들이 궁극적으로 다른 조선인 의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8; 연세대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1986). 제중원 의학교가 의학교과서의 편찬, 의사의 양성, 간호원의 교육이라는 목표로 운영된 데는, 이러한 에비슨의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899년에 칙령 1호가 공포되면서 관립의학교가 설립되었고, 서양의학 교육은 제중원과 관립의학교를 2개의 축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관립의학교는 1907년 광제원, 적십자병원 등 대한제국의 다른 의료기관과 통합되어 대한의원으로 다시 거듭난다. 대한의원에서는 의료 교육, 위생 업무가 통합되면서 식민지적 의료체계가 형성되고 고위직은 일본인들이 전적으로 장악하게 된다.

가르쳤고,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어느 수준까지 향상된 뒤에는 예비 과정으로 기초과목인 물리학, 화학 등을 4개월 동안 가르쳤다. 16명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12명의 학생이 본과생으로 선발되었다. 그러나 김두중(1966)은 초기 제중원 의학 교육이 주로 병원의 조수나 약국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기에 의학 교육의 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2) 번역정책 층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근대계몽기의 어문은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1894년 갑오개혁 칙령 제1호에서는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을 근본으로 하고 한문이나 국한문으로 번역하여 덧붙임”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국문이 근본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국문’, ‘한문’, ‘국한문’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밝힌다. 이런 입장을 반영하여 1894년 12월 12일 반포된 ‘종묘서고문’은 순국문, 한문, 국한문 3종의 형식으로 발표되기도 한다(허재영 2011). 그러나 이 시기에 정부가 실제로 순국문 정책을 시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문서는 주로 한문이나 국한문으로 작성되었고, 1894년 12월 12일자 칙령 이후에는 국한문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당시 번역 정책(또는 번역 관련 어문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한문’, ‘국한문’, ‘순국문’의 혼란스러운 양상은 번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한영균 2014; 권두연 2008). 조선의 문호개방 이후 외교통상조약 체결과정을 보면 문자와 번역 문제가 공식 정부 문서 작성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구한말 조약 회찬의 경우 대부분의 조약(예, ‘한미수호통상조약’, ‘한로수호통상조약’ 등)에서는 상대국의 언어(문자)와 한문(漢文)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즉 조약은 외국어로 작성된 뒤 외국어를 한역(漢譯)했던 것이다(최영철 허재영 2014). 외교통상 문서 중 1888년 ‘한로육로통상조약’만 순국문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순국문을 규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개항 이후 국가의 실제적인 공용 문자가 한문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앞서 언급한 1984년 갑오개혁은 실제로는 ‘국한문’의 영역을 넓혀가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국문이 본’이고 ‘한문’이나 ‘국한문’은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지만, 당시의 어문 생활을 기준으로 본다면 정부는 ‘국한문’ 사용의 폭을 확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근대계몽기의 문자에 대한 인식이 순국문 위주로 실제 언어생활을 영위하던 일반인들과 큰 괴리를 보였다는 점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17-18세기에 순국문 중심의 문자생활 영역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대계몽기의 문자 생활은 “정부 및 지배층의 한문 중심의 문자 생활과 피지배층의 훈민정음 중심의 문자 생활로 이원화”(허재영 2002: 120)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이원화’의 문제는 조선에서 활동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문자로서의 한글 채택”(박연호 김근영 2015)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 조선인들이 훌륭한 고유 문자(국문)를 두고도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체계성이 떨어지는 중국의 문자(한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선교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런 입장은 다수의 선교사 기록에서 확인된다(Silva 2008). 1893년 1월에 개최된 한국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에서는 “모든 기독교 서적이거나 출판물은 한문을 쓰지 않고 ‘조선 글’로만 쓰도록 한다”(김영재 2009: 124)는 선교 정책을 채택한다. 그러나 성경 번역을 비롯하여 각종 번역 사업에서 어떤 문자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는 그 후에도 여러 복잡한 논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중원의 언어정책 또는 번역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제중원에서 번역하고 출간한 모든 의학 교과서가 순국문으로 번역되었다는 점에서 순국문 사용은 정책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일괄적으로 시행되기 보다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다. 일례로 1895년 콜레라가 널리 유행할 당시 예비슨은 콜레라 예방을 위한 영어 팸플릿을 우리말로 번역 및 인쇄하여 일반인들에게 배부했다(박연호 김근영 2015). 이 때 국문 번역본은 5만부, 한문 번역본은 1천부를 인쇄하여 배부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은 순국문 위주로 작성하고, 한문만을 선호하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문 팸플릿을 작성했던 것이다. 제중원 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순국문으로만 번역 및 편찬되었다는 것은, 의학 교육이 한문 중심의 문자생활을 영위하는 지배층보다는 한글 중심의 문자생활에 더 익숙한 피지배층을 대상으로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중원의 한국어 의학교과서는 1910년까지만 편찬 및 사용되었고, 한일병탄 이후에는 더 이상 한국어 교재가 편찬되지 않았다. 11)

11) 1910년 국권피탈 이후 1911년 사립학교령이 공포되면서 모든 교재는 당국의 검열을 받아야 했고, 학교에서는 일본어 교재만 사용할 수 있었다. 1913년 총독부령 제100호로 <의사 규칙> 공포되면서 1914년부터는 총독부 지정 의학교를 졸업하거나 총독부 의사시험(일본어 의사면허시험)에서 합격해야만 의사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또한 1915년 <전문학교 규칙>, <개정 사립학교 규칙>이 공포되면서 강의에서 일본어 용어 사용이 필수가 되고, 교과과정, 교재, 교원 자격 모두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917년 세브란스의 교과서 목록을 보면, 일본 의학 교과서만 29종이다(서흥관 1994).

(3) 번역실천 층위

‘번역실천 층위’에서는 번역 주체, 번역 수행의 절차 및 구조, 번역 대상 텍스트의 문제를 고찰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제중원에서 편찬한 의학교재는 에비슨과 김필순, 홍석후, 홍중은이 번역했다. 에비슨은 제중원 의학교장으로 번역을 통한 교재 편찬을 주도했고, 김필순, 홍석후, 홍중은은 번역 수행 당시 제중원 재학생이거나 졸업한 지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다.

제중원에서 번역한 교재는 총 32권이다(강지혜 권미연 2017).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전하지 않는 번역서(출판 여부 확인 불가 포함)까지 포함해서 총 32권의 교재가 번역되었고, 그 중 13권은 출판이 되었다. 역자 확인이 가능한 번역서는 총 18권이며, 그 중 15권이 에비슨과 한국인이 공동번역한 교재이다. 일례로 1905년 출간된 『약물학 상권, 무기질』의 경우, 표지에는 “에비슨 번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에비슨의 역자 서문에는 김필순과 공동번역했음을 밝히고 있다(김필순이 별도로 쓴 역자 서문도 이 책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1906년에 출간된 『신편 생리교과서, 진』의 표지에는 한국인을 포함한 공동번역자의 성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홍석후 번역, 에비슨 교열”). 번역을 단독으로 수행하여 편찬한 교재 3권은 모두 공역 경험이 있는 한국인 번역자들(홍중은, 김필순)이 번역한 교재이다. 즉 제중원 교재 편찬 초반에는 외국인인 에비슨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중후반에는 한국인 번역자가 주도적으로 번역을 수행했던 것이다. 박형우(1998)가 지적하듯이, 한국인 번역자들은 서양의학 지식에 대한 이해력과 번역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번역작업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제중원 출간 번역서 목록 (강지혜·권미연 2017: 6-8)

년도	번역서	원본/저본	역자	출판여부	비고
1899	그레이의 해부학	Anatomy of the Human Body	에비슨(조수 미상)	확인불가	보관자의 사망으로 소실
1901	화학	확인불가	에비슨(조수 미상)	확인불가	학생 강의용으로만 사용
1904	그레이의 해부학	Anatomy of the Human Body	에비슨 구역, 김필순 필술	확인불가	화재로 소실, 원본은 1899년 같음

1905	약물학 상권, 무기질	Materia Medica and Therapeutics	에비슨 번역	대한황성 계중원 출판	현전, 역자 서문에서 에비슨은 김필순을 공동 번역자로 밝히고 있음
	약물학 유기질	Materia Medica and Therapeutics 추정	에비슨/김필 순 공동작업으 로 추정 가능	확인불가	약물학 무기질 서문에 유기질도 곧 준비한다는 설명이 있음
1906	허부학 권一, 二, 三	實用解剖學	김필순 번역, 에비슨 교열	대한황성 계중원 출판	현전
	신편 화학 교과서, 무기질	확인불가	김필순 번역, 에비슨 교열	대한황성 계중원 출판	현전
	신편 화학교과서, 유기질	확인불가	김필순 번역, 에비슨 교열	확인불가	1906년 초 현재 번역이 끝났으나 출판 여부 알 수 없음
	신편 생리교과서, 전	확인불가	홍석후 번역, 에비슨 교열	대한황성 계중원 출판	현전
	치료학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번역완료
	위생학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번역완료
	간호학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번역완료
	식물학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번역완료
	내과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김필순이 내과책을 번역했다는 기록이 있음
	진단학 권一	확인불가	홍석후 번역, 에비슨 교열	대한황성 계중원 출판	현전
1907	진단학 권二	확인불가	홍석후 번역, 에비슨 교열	대한황성 계중원 출판	현전
	피부병진단	확인불가	홍중은 번역,	대한황성	현전

	치료법		에비슨 교열	계중원 출판	
	세균학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번역완료
	병리등론	확인불가	확인불가	대한황성 계중원 출판	현전
1908	무씨 산과학	확인불가	홍중은 번역	대한황성 세브란스 병원 교육부 출판	현전
	고등생리학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번역완료
	내과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1906년 번역한 것과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음
	의학사전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1908년 번역 중이라는 기록 존재
	조직학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1909년 번역 중이라는 기록 존재
1909	히부학 권일	實用解剖學	김필순 번역, 에비슨 교열의 새로운 등사판	대한황성 계중원 출판	현전, 1906년 것과 내용이 같으나 글씨가 다르며 1909년 다시 등사한 것임
	신편 화학교과서, 유기질	확인불가	김필순 번역, 에비슨 교열	대한황성 계중원 출판	현전, 새로운 등사판
	신편 화학교과서, 무기질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1909년 새로운 등사판이 발행된 것으로 추정
	신편 생리학교과서, 전	확인불가	홍석후 번역, 에비슨 교열의 새로운 등사판	대한황성 계중원 출판	현전, 출판여부 확인 불가한 1906년의 새로운 등사판
	히부생리학	확인불가	김필순 번역	확인불가	교재 내용의 일부만

					번역하여 간호원 양성소에서 교재로 사용
	현미경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번역완료
1910	외과총론	확인불가	김필순 번역	세부란세 병원 출판	현전
미상	히부학 2책	實用解剖學	확인불가	확인불가	현전

원문 확인이 가능한 번역서는 총 7권이다(<표 1> 참조). 실제로는 3종의 원문이 중복 번역 편찬되어 7권으로 번역된 셈인데, *Materia Medica and Therapeutics*가 2회, *Anatomy of the Human Body*가 2회, 『實用解剖學』이 3회 번역 편찬되었다. 최초로 제중원에서 출판된 교재는 영국 의학자인 John Bruce의 *Materia Medica and Therapeutics*를 한국어로 번역한 『약물학 상권, 무귀질』이다(박준형 박형우 2011).

제중원에서 최초로 진행된 번역작업은 헨리 그레이(Henry Gray)의 *Anatomy of the Human Body*의 한국어 번역이다. 번역을 수행한 예비슨은 건강 문제로 1899년 캐나다로 연구년을 떠나면서 번역문 원고를 조수에게 맡겼는데, 조수가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소실되었다. 원고는 사라졌으나 당시 번역작업에 대한 기록은 1932년 7월 13일자 기독교신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魚丕信博士小傳. 조선 의료교육의 시작(二)’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예비슨은 다음과 같이 번역 과정을 설명한다.

우리가 그레이씨 저의 해부학을 번역하기 시작할 때에 나는 조선말로 그 여러 가지 과학상술어를 번역할 수 없음을 알고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과서를 번역만 할 뿐 아니라 새 말을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상 여러가지 술어를 번역과 함께 새로 만드러 내기 시작하였다 나는 부족한 조선말을 가지고 번역하는 사람에게 그 원어의 뜻을 일러주면 번역하는 사람은 나의 설명을 들은 후에 한 문글자로 그 뜻에 맞도록 문자를 만드러 내었다 이 모양으로 번역하여 만든 교재를 가지고 학생에게 첫 공과를 가르쳤다 이것도 맨 처음에는 한문으로 술어를 적당히 만들지 못하고 영어음에 맞춰 서술어를 쓰되 한문자를 사용하여 다소간 그 본의미를 나타내도록 하였든 것이다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8: 409; 굵은 글씨 필자 표기)

위에서 에비슨은 조선인 공역자와 함께 번역작업을 수행했다고 언급하는데, 이를 두고 박형우(1988, 1998), 박형우 박준형(2006)은 ‘번역’을 ‘구술’과 ‘필술’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즉 에비슨은 ‘구술’, 한국인 공역자는 ‘필술’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1906년부터는 ‘번역’을 한국인이 수행하고, 에비슨은 ‘교열’하는 것으로 역할이 변경된다. 이는 한국인 번역자들이 서양의학 지식에 대한 이해력과 번역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번역작업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원고 소실 후 에비슨은 *Anatomy of the Human Body*의 번역을 다시 한 번 수행하는데(1900년-1904년), 두 번째 번역과정에 대한 설명도 위에서 언급한 1932년 7월 13일자 기독교신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에 [두 번째 번역을 말함] 준비한 것은 전번에 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한 원고를 잃어버린 것이 도저히 이익이 된 셈이었다 이번에는 원고를 그림과 함께 등사하여 쓰기로 하였다 (중략) 이와 동시에 우리는 중국에서 중국어로 된 의학 서류를 많이 구입하였다 중국에는 서양으로부터 의료선교사들이 조선보다 훨씬 일찍이 드러와서 의학서적을 중국말로 준비한 것이 많았다 이 책들을 참고하는 가운데 도움을 받은 것이 많으나 어떤 것은 조선에 적당치 않게 된 것도 상당히 많았다 교과서 전부를 다 준비하기 전에 일본 것을 구입하여 참고한 것도 많았는데 대개는 문부생에서 의학교과서로 준비한 것들이었다 일어로 된 교과서 중에도 중국어로 된 교과서에서 쓴 같은 술어를 쓴 것이 많으나 어근(語源)은 같은 것이로되 서로 다르게 쓴 것도 많았으므로 두 가지를 참고하여 조선에 적당하도록 새로 만든 것도 상당히 많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으로 말하면 현대식 교육에 있어서 중국보다 훨씬 진보된 나라였고 관계에 있어서도 조선과 일본 사이가 더 밀접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마침내 일본의 교육방침을 따러가기로 결정하였다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8: 409; 굵은 글씨 필자 표기)

*Anatomy of the Human Body*의 첫 번째 번역과 두 번째 번역을 비교해보면, 두 번째 작업부터 중국어 번역서와 일어 번역서를 참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번역 수행에서 이들 번역서를 참고함으로써 번역에 “도움을 받은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적당하도록 새로 만든 것도 상당히

많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Anatomy of the Human Body*의 두 번째 번역작업부터 특히 일본어 번역서를 참고하게 되며, 이는 후행 번역작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1905년에는 일본 해부학자 이마타 쓰카네(今田 東)의 『實用解剖學』을 『히부학 권 一, 二, 三』으로 번역하게 된다. 일본어 교재를 저본으로 번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란카쿠(蘭學)의 영향으로 서양의학 서적이 일본에는 이미 다수 번역되어 있었고, 서양의학 용어를 영어에서 번역하기보다는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한 일본의 번역어에서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박형우 1998; 여인석 2008, 2009; 박형우 박준형 2006; 박준형 박형우 2011).

계중원의 번역자인 에비슨, 김필순, 홍석후, 홍종은은 한국어와 외국어 능력, 의학 지식, 의료 활동 경험에 있어 편차가 있었다.¹²⁾ 우선 에비슨은 영국 요크셔 출신으로 온타리오 약학대학(Ontario College of Pharmacy)과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토론토 의과대학의 약리학 교수를 역임했다. 토론토에서 개원하여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로도 활동하던 중 조선 파견을 자원하여 계중원에서 의료 활동과 교육을 담당했다. 따라서 한국인 번역자들에 비해 영어 능력, 의료 활동 경험, 의학 지식에 있어 월등하게 우수했다. 에비슨은 조선에 도착한 직후부터 우리말을 배웠으나, 번역은 한국인의 도움 없이는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¹³⁾ 한국인과의 공동작업에서 그는 ‘번역’, ‘구역’, ‘교열’을 수행한 것으로 교재 및 관련 기록물에 기술되어 있지만(박형우 1998; 여인석 2005; 박형우 박준형 2006), 한국인 번역자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분담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번역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이나 번역방법에 상세한 논의는 한국인 공역자가 더 정교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강지혜 권미연 2017 참조).

12) 번역자 에비슨과 김필순에 관한 논의, 특히 이들의 번역자로서의 가시성에 대한 논의는 강지혜 권미연(2017)을 참조할 것.

13) 한국어 의학 교과서 편찬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룬 1932년 7월 13일자 기독교신보 글에 의하면, 에비슨은 번역을 도와줄 조선인 없이는 번역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조선인을 찾았기 때문에 번역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가 찾는 조선인의 자격요건은 조선말을 잘 구사할 뿐만 아니라 영어도 충분히 알아서 의학 용어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8).

한국인 번역자인 김필순, 홍석후, 홍중은은 영어 능력이 매우 우수하고, 한문에 대한 이해력이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학 지식이 다른 제중원 학생에 비해 비교적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필순의 경우 황해도 송천리의 유지이자 만석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언더우드와 세례를 받고 배제학교를 거쳐 제중원에 입학했다. 그는 “영어실력이 뛰어났고, 성적도 좋아 졸업하기 전부터 에비슨원장을 도와 동급생들과 후배들을 가르쳤으며, 졸업 후에도 제중원에 남아서 의학서적을 번역”(연세대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1986: 58)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석후는 지금의 수원 근처 활초리 출신으로 한학에 뛰어났던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 서당 공부를 했다. 16세부터 3년 동안은 개신교인으로 한글과 한문을 선교사들에게 가르쳤던 부친의 영향으로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영어 강습소에서 서양의 신문물을 접하기도 했다. 그는 관립의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한 후 졸업까지 했으나 에비슨과 아버지의 권유로 제중원 의학교에 들어가 1기 졸업생으로 졸업했다. 홍중은도 홍석후와 마찬가지로 관립의학교를 졸업하고 1906년 다시 제중원 의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1908년 졸업 후 모교에 남아 의학 교육을 담당했다. 따라서 제중원에서 교재를 편찬한 한국인 번역자들은 모두 영어능력, 한문이해력, 의학지식에 있어 우수한 역량을 지닌 것으로 제중원 교수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번역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번역텍스트 층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899년부터 1910년까지 제중원에서 번역작업이 진행되거나 번역서로 출간된 교재는 32권이고, 이중 원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적은 7권이다. 7권의 저본이 된 원문은 3종, 즉 *Anatomy of the Human Body*, *Materia Medica and Therapeutics*, 『實用解剖學』이다. *Anatomy of the Human Body*의 경우 번역문이 소실된 관계로, 원문과 번역문의 실제 비교분석이 가능한 것은 *Materia Medica and Therapeutics*와 『實用解剖學』의 번역뿐이다. 즉 영어 원서와 일어 원서를 각각 우리말로 번역했으나, 영어 원서인 *Materia Medica and Therapeutics*의 경우에도 번역과정에서 일본어 교재를 참고했음을 번역자 김필순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필순은 번역서 『약물학상권, 무괴질』의 역자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본문더로 번역만 할 거시 아니오 이를 증감하며 그 장절의 초서를 밧고아 초학자의 과정에 덕당도록 하였스나 본방 방언에 약명과 병명과 밧의학상에 특히 쓰는 말중에 업는거시 만흠으로써 필순의 옛흔 학식과 용렬흔 재조로 **일본서 번역흔 말을 빌어쓰며** 혹 새 말도 지어쓰미... (굵은 글씨 필자 표기)

위의 ‘일본서 번역흔 말을 빌어쓰며’라는 설명이 일본어 번역텍스트를 참고했다는 의미인지,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의학 용어를 참고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Materia Medica and Therapeutics* 번역과정에서 일본어 텍스트를 참고한 것만은 분명하다.¹⁴⁾

제중원 교재 편찬 초기에는 영미권 의학 서적을 번역하려 했으나 번역 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의 교재와 번역서를 저본으로 우리말 번역교재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의 근거에는, 일본어 서적의 한국어 번역이 “의학용어 번역의 어려움을 해소”(김성은 가나즈 히데미 2014: 517)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원문이 영어 서적이 아닌 일본어 서적으로 변경되면서 한국인 번역자의 활약도 더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국인 번역자의 의학지식, 번역 능력도 축적되었다는 점이 관련이 있겠지만, 한국인 번역자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강지혜 권미연 2017). 이러한 변화는 『實用解剖學』의 한국어 번역서인 『히부학 권 一, 二, 三』을 살펴볼 경우 김필순이 번역을 수행하고 예비순은 교열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중원에서 번역된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한글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즉 근대계몽기의 문체로 통용되던 한문, 국한문, 순한글 중 순한글을 선택했다는 점은 개별 번역자의 결정사항이라기 보다는 앞에서

14)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층위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원문과 번역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번역 방법과 번역자의 전략을 포착한다. 그러나 일본어 번역을 참고했다는 번역자의 설명을 고려해 볼 때 일본어 번역서를 함께 분석하지 않고 *Materia Medica and Therapeutics*와 『약물학 상권, 무기질』만 비교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어 번역문까지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 본고에서는 원문과 번역문에 대한 미시적 비교분석은 하지 않는다. 차후에 원문, 번역문, 일본어 번역서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논의했던 제중원 번역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제중원 번역텍스트의 이런 특징은『實用解剖學』의 번역서 2종을 비교해볼 때 두드러진다. 제중원에서 번역한 『實用解剖學』은, ‘일본을 통한 근대 의학 도입’의 대표적 기관인 대한의학교에서도 번역한 서적이다. 제중원에서는 1906년에 김필순이 『히부학 권 一, 二, 三』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의학교에서는 1907년에 유병필이 『解剖學』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번역서를 출간한 것이다.¹⁵⁾ 동일한 서적을 저본으로 두 기관에서 각각 번역서를 출간했는데, 김필순은 순한글로, 유병필은 국한문으로 번역했다. 두 번역서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¹⁶⁾

상권은 계통상권(系統解剖學)과 국소상권(局所解剖學)과 태생학(胎生學)과 및 비교상권(比較解剖學)을 통칭함이니 대개 해부라 하는 말의 근본말은 Anatomia니 이는 유기체(有機體)를 각 조직으로 버혀난 하는 뜻이라 대개 유기체의 근본은 한 개의 세포로부터 자라며 변화하여 드디어 각 기계와 각체를 이루느니라 (김필순 번역본, 1906)

解剖學은 系統解剖學, 局所解剖學, 胎生解剖學及比較解剖學을 總稱함이니 蓋解剖란 語는 有機體를 各個로 截解하는 義라 大抵 有機體의 原基는 一個細胞로부터 生育變化를 由하여 各器各體를 組織하나니라 (유병필 번역본, 1907)

김필순은 순국문으로 번역하면서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예, 계통상권(系統解剖學))하거나 영어 의학 용어(예, Anatomia)를 번역문에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그러나 유병필 번역의 경우 내용어는 한자로, 조사 어미 등의 기능어는 국문으로 표기하며, 번역문에 원어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의학 용어의 번역어는 두 번역텍스트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예, ‘상권’과 ‘解剖學’). 그러나 좀 더 일상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 번역의 경우, 김필순

15) 『實用解剖學』을 김필순은 3권으로, 유병필은 1권으로 편찬했다. 유병필의 경우 대한의학교의 교사 고다케(小竹)가 원문을 편집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김성은 가나즈히데미 2014).

16) 본 연구에서 김필순의 『히부학 권一』은 연세대학교 한국외사학총서로 영인된 것을 참고했고, 『히부학 권二, 三』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 이미지 파일을 확인했다. 유병필의 『解剖學』은 세종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것을 검토하였다.

번역에서는 순우리말 중심의 의미 번역을 한 반면, 유병필 번역에서는 한문을 사용한다(예, ‘각 조직으로 버혀난 하는 뜻이라’와 ‘各個로 截解하는 義라’, ‘자라며 변화하여’와 ‘生育變化를 由하야’).¹⁷⁾

『약물학 상권, 무괴질』을 포함한 번역 교재에서는 ‘쏘듸엄(sodium)’, ‘가라멜(caramel)’, ‘소아과’, ‘내과’ 등과 같이 영어 원어나 일본어 번역어를 차용한 예가 확인된다(박준형 박형우 2011).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영어 차용의 경우 김필순이 직접 차용을 결정한 것인지, 일본어 책의 차용/번역 방식을 따른 것인지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¹⁸⁾

3.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제중원의 제도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근대계몽기 외국에서 전파된 새로운 학술지식은 우리 사회에서 번역과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모든 학술지식이 구체적인 맥락과 조건 속에서 생산되듯이 지식의 번역도 특정한 사회문화적, 정치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근대계몽기라는 시기에 제중원의 역할과 기능, 언어/번역에 대한 정책, 번역 수행의 주체와 번역방법, 번역텍스트의 특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중원의 번역이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았다. 즉 개신교 선교기관의 조선 포교활동 계획, 조선 정부의 서양문물 도입에 대한 의지, 제중원의 체계적인 의학 교육 실시 노력 등이 모두 작용하여 서양의학 지식의 번역 및 전파가 가능했다. 제중원에서는 영어권 의학교재 번역을 통해 영미권 의학 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란카쿠(蘭學)를 통해 독일의 의학(네덜란드 인들이 번역한 독일 의학 지식)을 먼저 도입한 일본

17) 원문과 김필순 번역문을 비교한 김성은 가나즈 히데미 (2014)에 의하면, 뼈, 근육, 혈관 등 상권적 구조의 명칭은 동일하다. 즉 원문의 한자를 우리식 발음으로 옮기지만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18) 김필순은 “새 말도 지어쓰매”라고 밝히고 있듯이 신조어도 만들었는데, 박준형 박형우(2011)는 ‘solvent’를 ‘해응약류(解滲藥類)’로 대체하거나 ‘pharmacopoeia’를 ‘조제서(組制書)’로 번역한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의 경험을 상당 부분 참조하여 서양 의학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의학 지식을 번역한 외국인 번역자의 우리말 이해력 및 구사력의 부족, 한국인 번역자의 영어 및 의학 지식 이해력 부족 등이 작용하기도 했다. 한글이 서양 의학 지식을 담아내기에 적합한 기표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기도 했다.

둘째, 제중원 번역이 근대 번역지형에서 지니는 의미는, 본격적인 번역활동이 이루어진 1910년 이후로 이행하는 시기의 번역 양상과 특징이 제중원 번역에서 잘 드러난다는 점이다. 제중원 번역이 행해진 1889년부터 1910년까지는 서양 지식 번역에 필요한 외국어/타문화 이해력, 전문분야 이해력, 번역능력을 갖춘 지식인층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어 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 의료선교사와 모국어 능력을 갖춘 한국인이 공동으로 번역을 해야 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한국인 번역자가 단독으로 번역을 수행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어권 의학교재의 우리말 번역이 시도되었으나, 현실적인 문제들(번역방법 모색의 어려움, 번역수행의 효율성 등)로 인해 결국 서양 의학을 먼저 수용하여 체계적으로 의학용어들을 이미 번역한 일본의 의학교재를 저본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 일본어 번역을 통한 우리말 번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이 제중원 의학교재 번역과 편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셋째, 근대계몽기의 모든 글쓰기가 그렇듯이 지식의 번역행위도 순국문, 국한문, 순한문 중 특정 문체의 선택을 요구했고, 문체 선택은 개별 번역자나 번역텍스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관의 번역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제중원 번역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더 권위 있는 국한문 또는 순한문 문체가 사용되지 않고 순국문 문체가 쓰인 것은, 제중원의 의학 교육이, 그리고 제중원의 의료선교가 순국문을 사용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대한의학회의 번역서에서는 국한문 문체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근대계몽기 서양의학 지식의 도입은 개신교 의료선교사들의 의료 활동, 의학 교육, 교재 편찬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조선 정부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즉 서양 문물을 도입하고 서양 의학을 통해 조선 의학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선 정부의 의지가 있었기에 제중원 설립 및 운영이 가

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학술지식의 초국가적 흐름을 ‘견인형 확산’, ‘투입형 확산’, ‘혼합형 확산’으로 구분한 와카바야시의 분류법에 따르면, 제중원을 통한 서양 의학 지식 도입은 ‘혼합형 확산’으로 봐야 할 것이다. 미 북장로교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이 의료 활동과 의학 교육을 통해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하고 기독교 확산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 것은 맞지만(‘투입형 확산’의 조건 충족), 이런 선교기관의 계획이 조선 정부의 선진 문물 도입에 대한 의지(‘견인형 확산’의 조건 충족)와 결합하여 제중원이라는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의학 교재 편찬과 교육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중원을 중심으로 근대계몽기 서양의학 교재 번역 문제를 검토했다. 근대 번역지형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양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분야의 지식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번역했는지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할 것이다. 서양 학술지식을 번역한 조선 지식인들, 교육기관, 출판사 등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번역 과정과 절차, 조건과 맥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지혜 권미연 (2017) 「근대 서양의학 지식의 번역자 연구: 제중원 의학 교재 공동 번역자들의 가시성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2): 1-25.
- 권두연 (2008) 「신문관(新文館) 단행본 번역소설 연구」, 『사이間SAI』 5: 113-150.
- 권두연 (2010) 「보성관(普成館)의 출판 활동 연구: 발행 서적과 번역원(翻譯員)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4: 7-53.
- 김두중 (1966)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 김성은 가나즈 히데미 (2014) 「근대 이학 교육과 번역」, 『일본어문학』 64: 501-524.
- 김영재 (2009) 『한국교회사』,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 김원모 옴김 (1991) 『알렌의 日記』,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 김윤성 (2004) 「몸, 질병, 근대성: 근대의학과 개항기 한국사회」, 『한신인문학연구』 5: 283-312.
- 민경배 (2007) 『한국기독교회사 - 한국 민족교회 형성 과정사』, 서울: 연세대학

교 출판부.

- 박연호 김근영 (2015) 「기독교 선교사들의 한글 교육, 1884-1905」, 『교육사학연구』 25(2): 93-124.
- 박종연 (1990) 「한국의 서양의학 수용과정과 의료의 이중구조화」, 『연세사회학』 10-11(합본호): 269-296.
- 박준형 박형우 (2011) 「제중원에서 『약물학 상권(무기질)』의 번역과 그 의미」, 『의사학』 20(2): 327-353
- 박형우 (1998) 「우리나라 근대의학 도입 초기의 의학 서적」, 『의사학』 7(2): 224-240.
- 박형우 편역 (2010)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 한국 42년, 1893-1935』, 서울: 청년의사.
- 박형우 박준형 (2006) 「한국에서 최초로 발간된 해부학 교과서와 편찬 배경」, 『대한해부학회지』 39: 461-469.
- 백낙준 (1973)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서영석 (2009) 「초기 제중원 활동의 선교사적 의의」, 『한국교회사학회지』 24: 9-47.
- 서흥관 (1994) 「우리나라 근대의학 초창기의 교과서들」, 『의사학』 3(1): 48-55.
- 신동원 (1995) 「공립의원 제중원, 1885-1894」, 『한국문화』 16: 181-260.
- 여인석 (2008) 「서양의학의 토착화와 제중원의학교」, 『연세의사학』 11(1): 23-31.
- 여인석 (2009) 「제중원과 세브란스 의전의 기초의학 교육과 연구」, 『연세의사학』 12(1): 43-57.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1986) 『의학백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광린 (1990)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서울: 일조각.
- 이만열 (2003) 『한국기독교의료사』, 서울: 아카넷.
- 이지훈 (2016) 「[天路歷程](턴로력딩) 번역과 근대적 공간 표상」, 『어문연구』 44(2): 213-241.
- 전우용 (2007) 「동아시아 나라들이 본 서양 근대 의학」, 병원역사문화센터 (편저), 『동아시아 서양 의학을 만나다』, 파주: 태학사.
- 정근식 (1997) 「한국에서의 근대적 癩 구류의 형성」, 『보건과 사회과학』 1(1):

1-30.

- 조형근 (2009) 「일제의 공식의료와 개신교 선교의료간 헤게모니 경쟁과 그 사회적 효과」, 『사회와역사』 82: 123-165.
- 주진오 (1997) 「서양의학의 수용과 제중원-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3): 1- 29.
- 최영철, 허재영 (2014) 「개항 이후 학제 도입 이전까지의 한국 근대 학문론과 어문 문제」, 『인문과학연구』 40: 181~207.
-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8) 『기독교신보 영인본, 1931.10-1932.10』,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회.
- 한영균 (2014) 「現代 韓國語 胎動期の 多重 翻譯 敍事物에 대한 기초적 연구」, 『국어사연구』 19: 125-169.
- 허윤정 조영수 (2015) 「일제 하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의료와 조선인 의사: 성진과 함흥을 중심으로」, 『의사학』 24(3): 621-657.
- 허재영 (2002) 「근대 계몽기의 어문 정책 - 『구한국 관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0: 97-149.
- 허재영 (2011) 「근대 계몽기 언문일치의 본질과 국한문체의 유형」, 『어문학』 114: 441-467.
- 허재영 (2015) 「근대 계몽기 지식 유통의 특징과 역술 문헌에 대하여」, 『어문론집』 63: 7-36.
- 홍윤표 (1995) 「국어사 시대 구분의 문제점과 문법사의 측면에서 본 시대 구분」, 『국어학』 25: 25-28.
- 황상익 (2010) 「제중원(濟衆院)의 신화와 역사(1)」,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3: 7-40.
- Allen, Horace N. (1884). *Horace Newton Allen Papers, 1883-1923, Bulk (1883-1905)*, New York Public Library, New York, NY.
- Chesterman, Andrew and Jenny Williams (2002) *The Map*.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Gouadec, Daniel (2007) *Translation as a Profess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 Hung, Eva and Judy Wakabayashi (eds) (2014) *Asian Translation Tradi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ang, Ji-Hae (2009) 'Institutional translation', in Mona Baker and Ga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Abingdon and New York: Routledge, 141-145.
- Kang, Ji-Hae (2014) 'Institutions translated: discourse, identity and power in institutional mediation', *Perspectives* 22(4): 469-478.
- Koskinen, Kaisa (2008) *Translating Institution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Koskinen, Kaisa (2011) 'Institutional translation', in Yves Gambier and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2*,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54-60.
- Mossop, Brian (2014) 'Motivation and de-motivation in a government translation service: A diary-based approach', *Perspectives* 22(4): 581-591.
- Said, Edward W. (1983) 'Traveling theory',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26-247.
- Schäffner, Christina, Luciana Sabina Tcaciuc and Wine Tesseur (2014) 'Translation practices in political institutions: A comparison of national, supra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Perspectives* 22(4): 493-510.
- Silva, David J. (2008) 'Missionary contributions toward the reevaluation of Hangeul in late nineteenth-century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92: 57-74.
- Wakabayashi, Judy (2014) 'The pros and cons of commercial institutions as an alternative venue for training translators and publishing translations in Japan', *Perspectives* 22(4): 534-546.
- Wakabayashi, Judy (2017) 'Approaches to the study of travelling ideas: Lessons from translation studies, historiography and the Japanese case', *Handout at the Advancing Research in Translating and Intercultural Studies (ARTIS) Symposium, Ajou University, South Korea, January 13, 2017.*

[Abstract]

**Medical Knowledge on the Move:
Institutional Translation of Medical Texts at Chejungwon during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Kang, Ji-Hae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in which ‘Western’ medical knowledge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the roles of the translators involved in institutional translation activities during the late nineteenth and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Korea, the transmission of the Western medical knowledge is associated with the 1885 establishment of Chejungwon, a modern hospital and medical school operated by Protestant missionaries. Western medical texts were translated for the first time at Chejungwon against the background of growing Japanese threat, diminishing Chinese influence, and dramatic changes in social and political structures in Korea. Drawing on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translation,’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process and product of Chejungwon’s translation by analyzing its institutional practices, translation policy, translators’ roles and activities, and translated texts. The study argues that medical knowledge translation at Chejungwon was a complex site of intersecting needs and expectations, collaborative practices, and social and cultural transformation.

▶ Key Words: institutional translation, medical text, academic knowledge, modernization, missionary medicine

강지혜

아주대학교

jihaekang@ajou.ac.kr

관심분야: 제도번역, 학술지식 번역, 번역과 디지털미디어, 번역학연구방법론

논문투고일: 2017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10일